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이 예비음악교사의 교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신 지 혜* · 이 수 진**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중등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양성프로그램이 음악교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범계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151명의 예비중등음악교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중등음악교사들이 인식한 교사양성프로그램의 영역별 영향은 교수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전문성 영역, 전문기술 및 지식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중등음악교사는 사범계에 재학 중인 예비중등음악교사보다 교과지식 등의 영역에서 더 높은 평균점수를 드러내었다. 셋째, 음악교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운영체제 및 수업적인 요인으로 교수법 및 지도법 수업, 교육학 이론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음악교수역량을 위해서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으로 실제적인 지식, 임용고시 대비를 위한 특강 및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 주제어: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 예비중등음악교사, 음악교수역량

차 례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1. 중등교사양성교육의 배경
2. 음악교수역량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3. 자료분석

IV. 결 과

1.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는 음악교수역량의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
2. 음악교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운영체제 및 수업적인 요인에 대한 인식
3. 음악교수역량을 위한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개선점에 대한 인식

V. 결론 및 제언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 교신저자

I. 서론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교육이 중요한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내용과 교육의 질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National Commissions on Teaching and America's Future, 1996). 이러한 교사의 자질은 우선적으로 교사양성프로그램에서 길러지는데, 교사양성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을 포함하여 교직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초임교사들이 교사로서 발전하는데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Darling-Hammond, 2000). 그러므로 교사들이 교과내용(content knowledge)을 어떠한 방법(pedagogy)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를 배우는 교사양성프로그램이 교사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이기영, 2013).

우리나라에서 중등음악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의 교직이수를 해야 한다. 교사양성프로그램에서 예비중등음악교사들은 음악교과의 내용과 관련된 교과내용학지식, 음악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교과교육학지식, 교육학 관련 기초지식을 포함하는 일반교육학지식, 교육실습과 관련된 교육상황지식을 배우게 된다(이기영, 2013). 하지만 이러한 교사양성프로그램에서 단순히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태도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교과를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교수방법을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는 음악교수역량을 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사의 자질로 인식되어지고 있다(최미영, 2015). 그러므로 예비중등음악교사의 교수역량을 기르는데 있어서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교사양성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생존을 위해서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Cochran-Smith, 2001; Darling-Hammond, 2000).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음악교육과 대학원 과정과 현직 음악교사의 교수실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구결과 음악교사들은 대학원 과정에 참여하면서 수업지도안 작성이나 교육과정 구성, 새로운 교수방법을 고안하는 것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Bell, 2003; Walls, 2008). 또한 연주소수업이나 개인레슨 등 대학원에서 들었던 실기관련 수업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실제 수업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철학, 심리학 등의 과목은 교수이유 및 교수방법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혀졌다(Conway et al., 2009). 특히 많은 현직 음악교사들은 대학원 교육과정동안 동료교사들과 형성된 공동체가 개인적인 혹은 학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Conway et al., 2009; Walls, 2008).

예비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교사양성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나(최진호, 2010) 교육실습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신혜경, 2014; 주희선, 2015). 연구 결과 예비중등음악교사는 교수의 전문성과 교수의 강의능력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수업실연과 같이 수업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진호, 2010). 또한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의 교육학지식, 상황이해지식, 학생이해지식에 도움을 주었고(주희선, 2015),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음악교사로서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신혜경, 2014).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교사양성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성 연구는 현직 음악교사와 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나 교육실습과 교수실제와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음악교수역량을 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사의 자질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예비음악교사의 역량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예비음악교사의 교수역량을 기르는데 있어서 교사양성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양성프로그램이 음악교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중등음악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이 음악교수역량에 미치는 영역별 영향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은 무엇인가?

둘째, 음악교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운영체제 및 수업적인 요인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은 무엇인가?

셋째, 음악교수역량을 위한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개선점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중등교사양성교육의 배경

중등교사양성교육은 교사교육의 하나로, ‘중등학교’의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중등교사 양성교육의 출발은 사범대학 제도의 창설로부터 볼 수 있다. 사범대학은 중등교사의 양성을 위해 최초로 설립된 정규의 중등교사 교육기관으로, 1946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창설된 이래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중등교사 양성교육의 역사가 이어져오고 있다(박수정, 2003).

현재 우리나라 중등학교의 음악 담당교사는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음악대학 교직과정, 그리고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다. 현재 총 10개의 사범대학에 음악교육과가 개설되어 있고 그 중 음악교육과가 가정 먼저 설치된 학교는 1966년에 개설된 조선대학교이다(석문주, 최은식, 2013).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틀은 음악대학의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교육학, 교육실습 및 음악교육 필수과목 이수를 요구하는 차이가 있다(임미경, 박미경, 2006).

중등음악교사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일반교육학, 교육실습으로 나눌 수 있다(이기영, 2013). 이 중 교과교육학 교과목은 교과교육론, 교재연구, 교수법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과내용학 교과목은 연주와 이론과목으로 나누어진다. 교육실습은 교사양성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3학년 때 참관학습과 4학년 때 교육실습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 개설되어있는 교과교육학 교과목으로는 음악교육론, 음악논리 및 논술, 음악교육과정과 평가, 특수음악교육, 음악교육세미나, 음악교육방법론 등의 과목이 있으며, 교재연구 및 지도 교과목 영역에서는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 컴퓨터 음악교육, 멀티미디어 음악교육론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교수법 영역에서는 음악교수법, 국악교수법, 오르프 교수법이 개설되어 있는데 음악영역별 지도로 합창, 합주 지도법, 국악가창지도법이 있으며, 실기 지도 교과목 중에는 피아노반주, 성악실기 지도방법, 국악기를 익히는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있는 추세이다. 교과내용학 교과목으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공실기 과목과 기초이론과목(화성학, 대위법, 시창청음 등), 서양음악사, 국악사 등을 개설하고 있다(석문주, 최은식, 2013).

2. 음악교수역량

역량(competency)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며 지적능력, 인성(태도),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Moore et al, 2002).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이라는 개념은 교수의 의미와 역량의 의미가 합쳐진 것으로 교사의 여러 가지 역량 중 핵심부분에 해당하는 수업에 관련된 역량을 의미하며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으로써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라는 의미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백순근 외, 2007).

음악교육학자들은 음악교육 전문가로서의 음악교사는 다양한 음악적 기술 및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수업을 음악교육전문가답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민경훈, 2014). 음악교수역량은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교사의 역량을 의미하며 음악교수역량은 음악수업의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최미영, 2014).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고찰은 음악교사의 자격기준이나 전문성기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교사교육인증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2008)는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에 지식, 기술, 전문적 성향(professional dispositions)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 음악교사협회(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2004)는 전문음악교사의 인증자격기준을 전문가로서의 준비(professional preparation), 전문적인 교수실행(professional teaching practice), 전문적인 교실운영 및 관리(professional business management), 교사 전문성과 협력(professionalism and partnerships), 전문성 향상(professional and personal renewal)으로 크게 5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 음악학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2015)는 음악교사의 자격기준을 바람직한 속성(desirable attributes), 음악역량(music competencies),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ies)으로 크게 분류하여 예비 음악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인증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음악교수역량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음악과 수업전문성 기준은 교사의 수업관련 직무를 음악교사의 지식, 음악수업에 대한 계획, 계획된 음악수업 실천, 음악교사로서의 직업 전문성의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임찬빈, 이경언, 2006). 이인제와 장기범(2008)도 교사의 자질 및 능력에 관한 중등학교 음악 교사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직이해, 학습복지, 학생이해, 교과,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습지원, 교육공동체, 교사전문성 등 10개의 영역별 자격기준과 46개의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미영(2014)은 일반적 수준의 교수역량 구성요소와 음악교사 자격기준 및 전문성 기준을 규명한 문헌분석을 토대로 초등교사의 음악교수역량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는데 음악교수역량을 전문기술 및 지식, 교수, 전문성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26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민경훈(2014)은 음악교사들이 역량강화를 위해 미리 습득해야 할 음악교과교육학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중등 음악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역량을 자기계발의 중요성, 교육과정과 학습자 이해의 능력, 교수·학습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충청시의 3개의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중등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으로 사범대학의 1-3학년 학생과 교육대학원의 1-4학기 학생 15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을 모두 갖추고, 둘째 2010년 전국 교원양성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학교들을 우선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영역			참여 수		합계
			빈도	%	
지역		서울	93	61.6	151
		충청	58	38.4	
성별		남자	22	14.6	151
		여자	129	85.4	
중등교사 양성체제		사범계	87	57.6	151
		교육대학원	64	42.4	
교사프로그램 단계	사범계	1학년	25	16.6	151
		2학년	18	11.9	
		3학년	44	29.1	
	교육 대학원	1학기	7	4.6	
		2학기	24	15.9	
		3학기	17	11.3	
		4학기	16	10.6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설문지는 2개의 영역, 즉 예비중등 음악교사가 인식하는 교사양성프로그램이 음악교수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르는 교사양성프로그램의 요인 및 개선점으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음악교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는 일반적 수준의 교수역량 구성요소와 음악교사 자격기준 및 전문성 기준을 규명한 문헌분석을 토대로 음악교수역량 구성요소를 도출한 최미영(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5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음악교수역량 구성요소는 전문기술 및 지식, 교수, 전문성의 3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전문기술 및 지식은 교과지식, 음악기술, 학습자 지식, 교수학습지식, 평가지식의 5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수영역은 수업계획(음악수업의 목표설정, 음악수업의 구조화, 교수전략 선정, 교수방법 및 자료계획, 평가계획 및 도구개발, 음악수업계획서 작성, 교수학습 환경조성), 수업실행(선수학습 회상, 동기부여,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교수매체 및 자료활용, 의사소통, 상호작용, 학습정리,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 수업평가(학습효과 평가, 평가결과 해석 및 활용)의 17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전문성 영역은 전문적 책무성(전문성 개발, 리더십 및 협력), 전문가적 기질(열정, 성실)의 4가지 하위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음악교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양성프로그램의 요인 및 개선점에 대한 영역은 Conway et al.(200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인터뷰 질문을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제작되었다. 세부적인 설문지 구성내용과 신뢰도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설문지 구성내용 및 신뢰도

영역		문항수	문항형태	신뢰도
배경변인	성별	1	선택형	
	중등교사 양성체제	1	선택형	
	학년/학기	1	선택형	
음악교수역량에 미치는 효과 인식	전문기술 및 지식	5	리커트	.784
	교수	17	리커트	.945
	전문성	4	리커트	.775
음악교수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식	세부적인 요인	1	기술형	
	추가로 바라는 점	1	기술형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Statistics 18.0이 사용되었다. 전반적인 음악교수역량효과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가 사용되었고, 중등교사 양성체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여 그 정도를 비교하였다. 음악교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요인을 위한 개방형 문항은 선택형 응답 방식으로 재코딩되어 분석되었고, 빈도분석이 사용되었다.

IV.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중등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양성프로그램이 음악교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수집된 설문지는 연구문제에 따라서 교사양성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는 음악교수역량의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 음악교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운영체제 및 수업적인 요인에 대한 인식, 음악교수역량을 위한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개선점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서 분석되었다.

1.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는 음악교수역량의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

1) 전반적인 음악교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표 3>에서 보이듯이 예비중등음악교사들이 인식한 교사양성프로그램이 음악교수역량에 미치는 영역별 영향은 교수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성 영역, 전문기술 및 지식 영역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교수 영역의 표준편차가 0.864로 나타나 전문성 영역의 0.874, 전문기술 및 지식 영역의 0.920보다 예비중등음악교사들의 응답간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것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음악교사들이 수업을 실제 계획,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효과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전반적인 음악교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영역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전문기술 및 지식	교과지식	3.90	.957
	음악기술	3.38	.985
	학습자지식	3.71	.829
	교수학습지식	3.89	.946
	평가지식	3.45	.885
교수	음악수업의 목표설정	3.72	.925
	음악수업의 구조화	3.48	.958
	교수전략 선정	3.89	.868
	교수방법 및 자료계획	3.83	.955
	평가계획 및 도구 개발	3.70	1.02
	음악수업계획서 작성	3.99	.894
	교수학습 환경조성	3.54	.790
	선수학습 회상	3.74	.804
	동기부여	3.86	.800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3.77	.801
	교수매체 및 자료 활용	3.85	.812
	의사소통	3.70	.747
	상호작용	3.75	.887
	학습정리	3.87	.869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	3.54	.847
전문성	수업평가	3.77	.875
	평가결과 해석 및 활용	3.70	.831
	전문성 계발	3.86	.841
	리더십 및 협력	3.30	.945
	열정	3.85	.847
전문성	성실	3.89	.861
평균		3.72	.886

세부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교수영역 중에서 음악수업계획서 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교수전략 선정, 학습정리, 동기부여, 교수 매체 및 자료 활용, 교수방법 및 자료활용계획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악수업의 구조화가 가장 낮은 하위영역이었다. 전문성 영역에서는 성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전문성 계발, 열정 순이었고, 리더십 및 협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문기술

및 지식 영역에서는 교과지식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수 학습지식, 학습자지식, 평가지식 순으로 나타났고, 음악기술이 가장 낮았다.

2) 중등교사 양성체제에 따른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

본문에서는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이 음악교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중등교사 양성체제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표 4>에서 나타났듯이 전반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중등음악교사의 평균점수가 사범계에 재학 중인 응답자의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중등음악교사가 사범계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보다 음악교수역량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중등음악교사는 사범계에 재학 중인 예비중등음악교사보다 전문기술 및 지식 영역에서의 교과지식, 교수학습 지식, 학습자 지식, 교수영역에서의 교수전략 선정, 교수방법 및 자료계획, 전문성 영역에서의 성실에서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p<.05$). 사범계에 재학 중인 예비중등음악교사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응답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점수($p<.05$)를 보인 하위영역은 리더십 및 협력 하위 영역 뿐 이었다.

<표 4> 중등교사 양성체제에 따른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

영역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T
		사범계	교육대학원	사범계	교육대학원	
전문기술 및 지식	교과지식	3.63	4.27	.878	.947	-4.239*
	음악기술	3.48	3.23	.998	.955	1.538
	학습자지식	3.54	3.94	.846	.753	-3.038*
	교수학습지식	3.67	4.20	.984	.800	-3.575*
	평가지식	3.38	3.55	.866	.907	-1.152
교수	음악수업의 목표설정	3.62	3.86	.879	.974	-1.575
	음악수업의 구조화	3.40	3.59	.921	1.003	-1.215
	교수전략 선정	3.72	4.11	.898	.779	-2.813*
	교수방법 및 자료계획	3.68	4.05	.869	1.030	-2.380*
	평가계획 및 도구 개발	3.69	3.70	.880	1.191	-.080
	음악수업계획서 작성	3.92	4.08	.892	.896	-1.077
	교수학습 환경조성	3.62	3.42	.766	.813	1.536

영역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T
		사범계	교육대학원	사범계	교육대학원	
수업 실행	선수학습 회상	3.64	3.88	.777	.826	-1.760
	동기부여	3.76	4.00	.777	.816	-1.846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3.69	3.89	.811	.779	-1.530
	교수매체 및 자료 활용	3.76	3.98	.777	.845	-1.700
	의사소통	3.67	3.75	.742	.756	-.677
	상호작용	3.68	3.86	.828	.957	-1.243
	학습정리	3.76	4.02	.889	.826	-1.809
	학생관리 및 학급운영	3.63	3.41	.749	.955	.119
	학습효과 평가	3.71	3.84	.746	1.027	-.909
전 문 성	평가결과 해석 및 활용	3.66	3.77	.790	.886	-.806
	전문적 책무성					
	전문성 계발	3.77	3.98	.758	.934	-1.554
	리더십 및 협력	3.49	3.05	.861	.999	2.947*
	전문가 적 기질					
	열정	3.76	3.97	.835	.854	-1.514
	성실	3.75	4.08	.866	.822	-2.371*

* $p<.05$

2. 음악교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운영체제 및 수업적인 요인에 대한 인식

<표 5>는 예비중등음악교사가 인식하는 음악교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운영체제 및 수업적인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본 항목의 설문지에는 총 92명의 예비중등음악교사들이 응답을 하였는데 설문지 결과 수업영역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78.2%). 수업영역의 하위요소 중 교수법 및 지도법 수업이 전체의 22.8%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고, 그 뒤를 이어서 수업실연(17.4%), 교육학 이론(15.2%), 지도안 작성(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중등음악교사들이 교수법 수업을 통해서 배운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실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수업실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수의 응답자(15.2%)가 또한 교육학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을 얻었고 철학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음악교육의

실제(practice)뿐만 아니라 이론(theory)적인 내용이 음악교수역량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 음악교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운영체제 및 수업적인 요인에 대한 인식

영역	하위영역	계(비율)
수업	교수법 및 지도법 수업	21(22.8)
	수업실연	16(17.4)
	교육학 이론	14(15.2)
	지도안 작성	9(9.8)
	장구, 단소 등의 실기수업	5(5.4)
	자기성찰	1(1.1)
실습	현장에서의 수업참관	6(6.5)
	교육실습	5(5.4)
교수자 역할	교수의 조언 및 피드백	4(4.3)
	진로상담	2(2.2)
	교수자질	2(2.2)
동료학습	동기부여	3(3.3)
	협동과제학습	2(2.2)
특강	실기특강	1(1.1)
	선배들의 경험담 및 조언	1(1.1)
총		92(100%)

본 결과에서는 수업영역과는 다르게 실습영역이 11.9%만을 차지하였는데 현장에서의 수업참관 6.5%, 교육실습이 5.4%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실습이 학생들의 교수내용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선행연구결과(신혜경, 2014; 주희선; 2015)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교육실습을 다녀온 사범계 4학년과 교육대학원 5학기 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예비중등음악교사가 교육실습 외에도 현장수업참관을 중요한 요소로 꼽은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교육실습이 있기 전에 다양한 현장수업참관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소수이지만 응답자의 5.5%가 동료학습을 언급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과제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배우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고 답변하였다. 이는 예비중등음악교사의 공동체가 이들이 교사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음악교수역량을 위한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개선점에 대한 인식

음악교수역량을 위해서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이 개선해야 되는 점을 서술하는 개방형 문항에서는 총 58명의 예비중등음악교사가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수업과 관련된 응답이 전체의 53.5%를 차지하여서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였다(<표 6>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제적인 지식 및 교수법과 실기수업이 각 25.9%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응답자들은 단순한 전공실기수업보다는 학교에서 실제적인 악기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악기 교수법의 수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음악교수역량을 위한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개선점에 대한 인식

영역	하위영역	계(비율)
수업	실제적인 지식 및 교수법	15(25.9)
	실기수업	15(25.9)
	지도안에 대한 피드백	1(1.7)
실습	현장실습	6(12)
교수자 역할	교수와의 상담	1(1.7)
특강	임용고시 대비를 위한 특강 및 프로그램	20(34.5)
총		58(100%)

그 다음으로는 전체의 34.5%가 임용고시 대비를 위한 특강 및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구하는 응답을 적었는데, 이는 교사양성프로그램에서 음악교수역량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이 국가고시에서 증명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원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후속 연구에서는 예비중등음악교사가 인식하는 임용고시와 교수역량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중등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양성프로그램이 음악교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중등음악교사들이 인식한 교사양성프로그램의 영역별 영향은 교수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전문성 영역, 전문기술 및 지식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영역 중에서 음악수업계획서 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악수업의 구조화가 가장 낮은 하위영역이었다. 전문성 영역에서는 성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리더십 및 협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문기술 및 지식 영역에서는 교과지식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음악기술이 가장 낮았다. 이는 교사양성프로그램이 수업지도안 작성이나 교육과정 구성을 고안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는 선행연구(Bell, 2003; Walls, 2008)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비중등음악교사를 위한 교사양성프로그램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의 부족한 교수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교과목 구성, 세분화된 특강 및 세미나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등교사 양성체제에 따른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중등음악교사는 사범계에 재학 중인 예비중등음악교사보다 교과지식, 교수학습지식, 학습자 지식, 교수전략 선정, 교수방법 및 자료계획, 성실 영역에서 더 높은 평균점수를 드러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사범계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중등음악교사의 상이한 음악적 배경 때문인지, 학부 과정의 경험이 석사과정에서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Conway et al.(200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인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예비중등음악교사의 학부 전공이 음악교육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학부에서의 어떤 수업과 과정들이 대학원 과정 안에서 음악교수역량을 위한 준비와 연관성이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음악교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의 운영체제 및 수업적인 요인으로 교수법 및 지도법 수업, 수업실연, 교육학 이론, 지도안 작성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악교사들이 교육학 이론을 통해서 지적 및 학문적 성장을 이루고 실기 및 지도법 등의 수업으로 실제적인 지식을 쌓는다는 Conway et al.(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중등

음악교사를 위한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보다는 이론과 실제의 균형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음악교수역량을 위해서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으로 실제적인 지식 및 교수법, 실기수업, 임용고시 대비를 위한 특강 및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이는 예비중등음악교사가 수업할 때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 및 경험과 임용고시 준비를 위한 지원을 요구한다는 최진호(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실제적인 수업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Conway et al.(2009)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단순한 실기수업이 아니라 악기를 가르치는 테크닉을 배울 수 있는 실기수업이 예비음악교사들에게 더 필요한 수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순한 음악교육에 관련된 이론 및 실제 수업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임용고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련된 정보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은 이러한 예비음악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수법 및 실기수업의 보강과 임용고시 준비를 위한 특강 및 세미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의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지역의 예비중등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과 충청지역의 중등교사양성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예비중등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범계 1-3학년과 교육대학원 1-4기 학생들만이 연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교사양성프로그램의 최종단계에 있는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 지역의 사범계와 교육대학원의 전 학기 및 학년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사범계와 교육대학원의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들의 음악적인 배경의 차이인 것인지, 혹은 학부의 어떤 전공과 수업, 프로그램들이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예비중등음악교사의 교수역량을 기르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교육과정과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예비중등음악교사들은 이들이 개인적, 학문적으로 성장하는데 동료들과의 공동체가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공동체 형성계기, 과정, 요인 등을 분석하여 이를 교사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민경훈 (2014). 교과교육학의 관점에서 중등학교 음악교사의 역량 강화에 관한 논의. **음악교육공학**, 18, 251-274.
- 박수정 (2003). 한국 사범대학 제도의 형성. **한국교원교육연구**, 20(1), 135-157.
- 백순근, 함은혜, 이재열, 신호정, 유예림 (2007). 중등학교 교사의 교수역량 구성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8(1), 47-69.
- 석문주, 최은식 (2013). 사범대학 음악교사 교육과정의 역사적 고찰. 미래음악교육연구회 제3회 세미나: 음악교육의 역사적 접근. 85-98.
- 신혜경 (2014). 예비음악교사의 교육실습 경험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 267-294.
- 이기영 (2013). 과학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정합성 및 균형성에 대한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의 인식. **과학교육연구지**, 27(1), 23-39.
- 이인제, 장기범 (2008).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표시 과목 「음악」의 교사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08-6-20.
- 임미경, 박미경 (2006). 중등음악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연구**, 30, 149-175.
- 임찬빈, 이경언 (2006). **수업평가 매뉴얼: 음악과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 주희선 (2015). 교육실습 경험과 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예비중등음악교사의 인식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799-821.
- 최미영 (2014). 초등학교의 음악교수역량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공학**, 21, 1-25.
- 최미영 (2015).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음악교수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요구 분석. **음악교육연구**, 44(2), 163-184.
- 최진호 (2010).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들의 교육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음악교육연구**, 38, 149-171.
- Bell, C. L. (2003). Beginning the dialogue: Teachers respond to the national standards in music.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56, 31-43.
- Cochran-Smith, M. (2001). Constructing outcomes in teacher education: Policy, practice and pitfalls. *Education Policy Analysis Archives*, 9(11), Retrieved from <http://epaa.asu.edu/epaa/v9n11.html>

- Conway, C., Eros, J., Stanley, A. M. (2009). Perceived effects of the Master of Music in Music Education on P-12 teaching practice.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31(2), 129-141.
- Darling-Hammond, L. (2000). Teacher quality and student achievement: A review of state policy evidence. *Education Policy Analysis Archives*, 8, 1-46.
- Moore, D. R., Cheng, M. I., & Dainty, A. R. (2002). Competence, competency and competencies: performance assessment in organizations. *Work Study*, 51(6), 314-319.
- 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2004). *What a nationally certified teacher of music should know and be able to do*. Retrieved from <http://www.mtnacertification.org/standards>
-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2015). *NASM handbook 2015-2016*.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 National Commissions on Teaching and America's Future (1996). *What matters most: Teaching for America's future*. New York, NY: National Commission on Teaching and America's Future.
-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2008). *Professional standards for the accreditation of teacher preparation in institutions*.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 Walls, K. C. (2008). Distance learning in graduate music teacher education: Promot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satisfaction of music teachers.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18(1), 55-66.

ABSTRACT

**A Study of Perception on Secondary
Teacher Education Programs' Effects on
Pre-service Music Teachers' Teaching
Competency**

Jihae Shin · Sooji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e-service music teachers' perception on how secondary teacher education programs affect music teaching competency.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51 pre-service music teachers from music education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eaching domain is the biggest influence on pre-service teachers' perceived education programs followed by professionalism and professional skill/knowledge domain. Second, pre-service teachers in graduate programs give higher ratings in areas such as content knowledge compared to those in undergraduate programs. Third, the programs' methods classes and educational theoretical perspectives are the biggest factors that affect teaching competency. Last of all, this study proposes that programs need to incorporate more practical classes to enhance teaching competency.

Key words: secondary teacher education program, pre-service music teacher,
music teaching competency

투고일: 2016년 2월 29일, 심사(수정): 4월 19일(4월 26일), 게재확정일: 5월 13일